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드라마 복귀 命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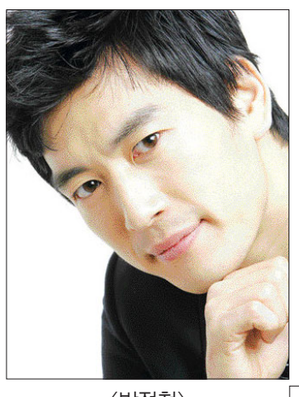
윤계상·장혁·박정철 등 ‘스타들의 귀환’ 잇따라

‘스타들의 귀환’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스타들의 컴백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은 인물은 그룹 god 출신의 연기자 윤계상.

6년만에 드라마로 돌아온 이미연과 SBS 드라마 ‘사랑에 미치다’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윤계상은 이 작품에서 자신이 교통사고로 죽인 남자의 약혼녀와 운명적인 사랑을 엮어간다. 현재 10회까지 방영된 상태로 시청률은 10% 안팎에 머물고 있어 성공적인 복귀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태.


〈박정철〉

지난해 11월 제대한 장혁은 오는 21일 첫방송을 시작하는 MBC 수목드라마 ‘고맙습니다’를 통해 컴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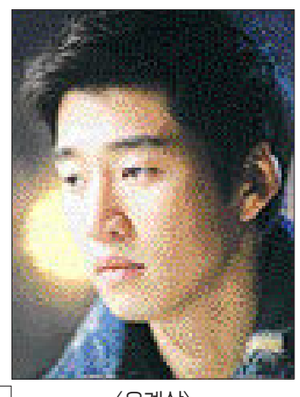
수많은 드라마 폐인을 양산했던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작가 이경희의 극본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고맙습니다’는 남도의 한 섬을 배경으로 에이즈에 감염된 아이를 둔 미혼모와 잘난체 하는 의사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드라마의 대부분을 신안군 증도에서 촬영중인 ‘고맙습니다’에서 장혁은 순수한 모녀를 만나면서 변화하는 의사 기서로 출연하며 영화와 드라마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공효진이 여주인공 영신역을 맡았다.

그밖에 뮤지컬 배우 출신으로 케이블 드라마 ‘하이에나’를 통해 눈도장을 찍은 신성록과 김성은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장혁〉

특히 ‘고맙습니다’는 한가인과 재희, 데니스 오 등이 호흡을 맞추는 ‘마녀유희’(SBS)와 주지훈·엄태웅·신민아 주연의 ‘마왕’(KBS) 등 인기스타들이 포진해 있는 작품들과 같은 날 첫방송을 내보낼 예정으로 있어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계상〉

지난 1월말 전역한 탤런트 박정철은 ‘사랑에 미치다’ 후속으로 방영되는 SBS 드라마 ‘푸른 물고기’의 주인공으로 낙점됐다.

미스터리 멜로 드라마를 표방한 이 작품에서 박정철은 여러가지 이유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살다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는 남자주인공 현우 역을 맡았다. 상대역은 무려 9년만에 드라마로 컴백하는 톱스타 고소영으로 그녀가 맡은 역할은 비련의 운명 속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은 바이올리니스트 정은수 역이다.

현재 인기리에 방영중인 SBS 드라마에서 감초연기를 선보이고 있는 김인권은 군제대후 성공적인 신고식을 치렀다.

그가 맡은 외과 1년차 레지던트 박재범이 보여주는 익살스런 코믹 연기는 자칫 딱딱해지기 쉬운 의학드라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김인권은 현재 다니엘 헤니 주연의 영화 ’마이파더’ 촬영도 병행하며 활발한 활동도 펼치고 있다.

현재 차기 작품을 신중히 고르고 있는 배우는 송승헌. 의류업체 광고 촬영으로 공식활동을 시작한 송승헌은 드라마 KBS ‘여름향기’ 이후 4년만에 드라마 나들이를 위해 ‘신들의 도시’등을 후보작으로 놓고 고심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가수 이승환 미국 공연

내달 6~7일 LA서

가수 이승환이 미국 공연에 나선다.

이승환은 4월 6~7일 미국 L.A 파사데나 시빅 오디토리엄(Pasadena Civic Auditorium)에서 단독 공연을 펼친다. 이곳은 2005년 10월 미국 3개 도시 투어를 함께 펼친 YB(윤도현 밴드)와 마야가 LA 공연 때 섰던 곳이기도 하다.

현지에선 루이 암스트롱, 반 헤일런 등의 공연장으로 유명해졌다. 4천 석 규모로 2회 동안 진행될 이승환의 이번 공연은 현지인이 설립한 미국 공연 법인 콘체르토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이승환의 국내 공연 때 호흡을 맞춘 30여 명의 스태프가 전원 동참한다. 이승환은 일찌감치 현지로 건너가 미국의 한인 방송을 비롯한 현지 언론과 인터뷰할 예정이다.

“강력반장 고현정 활약 기대하세요”

MBC 드라마 ‘히트’ 19일 방영

10년간 TV를 떠나 있었기 때문일까. 이름 석 자에 배어 있는 신비감이 무색하도록 종횡무진이다.

노처녀 잡지사 여기자로 TV에 머물던 것이 지난해 11월인데 3월부터는 형사로 분한다. 19일부터 방송될 MBC 월화드라마 ‘히트’(극본 김영현 · 박상연, 연출 유철용)에서 고현정(36)은 한국 최초의 여성 강력반장 차수경을 연기한다.

최근 열린 제작 발표회에 검은색 정장 차림에 짧은 머리로 나타난 고현정은 점점 ‘거친’ 캐릭터를 맡는 것 같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의도한 건 아니에요. ‘본의 아니게’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차수경이 거칠다면 거칠지만 정반대의 면이 있는 캐릭터예요. 10년간 연기를 안 해서 예전 모습만 머리 속에 갖고 계시다가 뚝 끊어진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런 것 같은데,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맘먹고 바꾼 건 없어요. 보시는 분은 괴로울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바라보다가 눈물 떨어뜨리는 역도 아직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웃음).”

‘히트’는 15년 전 차수경의 애인이 범죄 용의자를 쫓다가 칼에 찔려 죽는 사건에서 시작된다. 이후 차수경은 수사전문 형사로 거듭나 애인을 죽음으로 몰고간 사건을 파헤친다.

이날 공개된 예고편에서 고현정은 짧은 머리가 휘날리도록 뛰고 또 뛰고 소리지른다. 옅은 화장에 점퍼 차림이다.

“액션 장면이 많아서 정두홍 무술감독님께 배우기도 했어요. 제가 평소에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뛰는 것부터 배웠죠. 사람을 제압하는 것 같은 약간 호신술 비슷한 강한 액션을 배웠어요.”

아직까지 고현정에게 남아 있는 신비감이 있어서 변신하는 주기가 더욱 짧게 느껴진다. 일하는 데 속도를 내는 것 같다는 질문에 고현정이 웃는다.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건 아닌데 타이밍이 잘 맞았어요. 너무 자주 들이미나요? (웃음)”

10 BOX OFFICE

영화

(단위:명)

순위	제목	서울관객	전국누계
1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8만9천100	31만 5천400
2	행복을 찾아서	6만9천800	28만 3천900
3	1번가의 기적	6만2천	227만 3천
4	드림걸즈	5만4천	51만 9천
5	좋지아니한가	3만1천500	17만6천200
6	복면달호	2만8천600	144만7천
7	한니발 라이징	2만6천	15만7천500
8	바벨	1만4천900	19만9천100
9	바람피기 좋은날	1만1천600	179만8천600
10	홀라걸스	1만300	2만8천500

〈자료제공:필름 2.0〉

TV

(단위:%)

순위	제 목	방송국·시청률	
1	주몽	MBC	48.9
2	하늘만큼 땅만큼	KBS1	26.5
3	외과의사 봉달희	SBS	25.3
4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SBS	24.8
5	행복한 여자	KBS2	23.2
6	무한도전	MBC	23.1
7	나쁜여자 착한여자	MBC	21.5
8	연개소문	SBS	20.9
9	대조영	KBS1	20.8
10	거침없이 하이킥	MBC	20.8

〈자료제공:TNS리서치〉

비디오

순위	제 목	장 르
1	타짜	드라마
2	007-카지노 로얄	로맨스
3	해바라기	드라마
4	묵공	서사극
5	거룩한 계보	드라마
6	데스노트 라스트 네임	미스터리
7	데스 노트	미스터리
8	열혈남아	드라마
9	미이라 비기닝 2	액션
10	가문의 부활	코미디

〈자료제공:씨네타운〉

가요

순위	제 목	가 수
1	미인	이기찬
2	하루	포지션
3	팬	에픽하이
4	유혹의 소나타	아이비
5	추억은 사랑을 닮아	박효신
6	헤이 보이	서지영
7	미워요	씨야
8	같은 베개	테이
9	그깟 사랑	리즈
10	아이러니	원더걸스

〈자료제공:벅스뮤직〉